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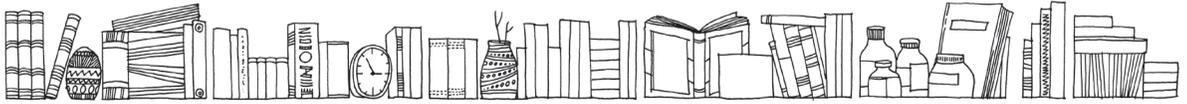
덕산엔 붉은 동백과 노오란 산수유,
파란 하늘과 푸르른 봄나물들이 한데 모여 꽤나 잘 어울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모여 있습니다.
각자가 너무나도 다른 107명의 학생들이 끈으로 서로를
데려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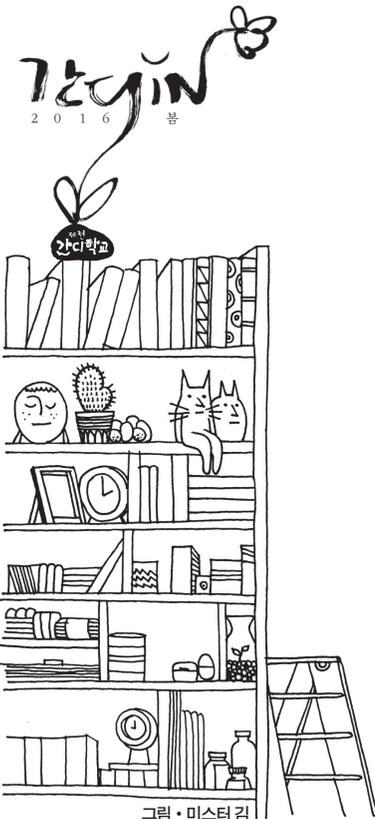
저마다 봄인 양 얼룩덜룩한 300명의 어른들도
딱 덕산의 풍경만큼만, 우리들만큼만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여 있을 생각입니다.

-기자 하한(6학년)



차례



1부
2부
3부

여는 글	2	나는 바꾸고 싶습니다?
생활관 이야기	6	우리 같이 살고 있나요?
MSG	11	간디워 Z
선고리와 간디학교	17	낯설음을 잃지 않을 때
반가워요 후원인	24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화제의 인물	28	내려다볼 수 없는 그녀
간짧소	38	간디인의 짧은 소식 / 스케줄러
	46	기자 후기



나는 바꾸고 싶습니까?

김민석 편집장(5학년)

3월 31일 목요일. 제천간디학교에서는 규칙 개정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 규칙들에 대해 툭 까놓고 얘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엔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규칙, 약속으로 바꾸는 것이 토론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먼저 탄탄한 토론회를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발로 뛰어 왔습니다. 토론회 패널을 구하는 것부터 학생/학부모 설문 조사, 홍보 등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론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토론회에 참여했고, 규칙 개정의 시발점이 될 중요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목요일에 있는 가족회의까지 쉬고 하루 종일을 토론회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토론회는 오전엔 매점(일반 식품), 오후엔 전자기기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매점을 주제로 한 토론에는 약 60명의 학생들이 참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전자기기 토론에서는 오전과 달리 고작 25명의 학생들만이 끝까지 남아 토론을 참관해 주었습니다. 25명의 학생들은 거의 다 여학생들이었고, 그중 남학생들은 열 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참여율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현 규칙에 대해 언제나 불만뿐이었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규칙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규칙 개정 대토론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선택 참여라도!) 분명 우리 학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의 문제인데, 학생들은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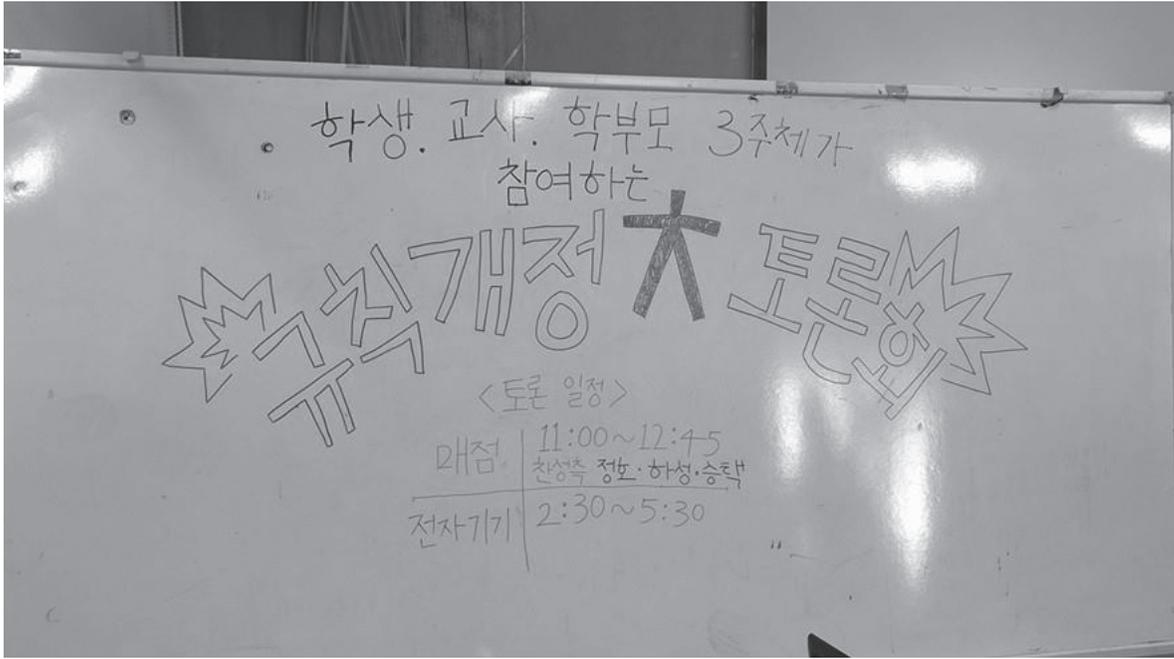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이 규칙 개정에 대해 자신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다고 봅니다. 분명 현 규칙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토론회가

있기 하루 전날까지도 학생들 안에서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이나 무언가 바꾸고자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서긴 귀찮고, ‘누군가 대신 해 주겠지’란 책임감 없는 생각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다 소용없을 거란 패배감이 원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이 문제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걸까요? 인식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면, 학생들이 이 점을 인식할 수 있게 알려 주고, 변화의 바람이 불게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좀 더 알찬 토론회가 됐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또 다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학교의 시스템에 의해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토론회 당일, 토론회에 들어가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인 시간을 보냈지만, 다수의 고등부 학생들은 작업장, 동아리 활동, 숙제, 개인무빙 준비 등, 밀린 과제, 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 일이, 자신의 학교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규칙 개정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것이지요. 이런 ‘어떠한’ 시스템은 누가 나서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던 우리 스스로가 그 시스템 안에 갇혀 버린 거지요.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왜 갇히게 된 것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제 시간 안에 일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 시간 안에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 사람들에게 ‘자기 일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담감과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또 학생들은 어떤 조직(동아리, 소모임 등)에 들어가 목적 없이 매주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같은 활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취감이나 보람 같은 건 느낄 수 없습니다. 분명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학생들은 누가 시킨 일처럼 목적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변화 없이 그저 조직을 유지시켜야 하는 압박 혹은 매번 하던 길 또 한다는 익숙함 때문일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학생들 스스로가 시스템에 갇히게 되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바쁜 학교 생활, 자발성이 결여된 학교 생활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공동체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틀 안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놓친 채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기만 하고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건 개인의 몫이지만 알려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공동체의 몫일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 몫을 혼자 진다면 무거워 금방 지쳐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그 몫을 함께 나눠서 진다면 지쳐 쓰러지는 사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그 몫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디IN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간디IN 쪽지 개편이 있었습니다. 1부에 '배움 속으로', '우리끼리' 쪽지가 비슷하다는 기자들의 의견으로 두 쪽지를 합치고 'M.S.G(멋있는 사람들, 간디인)'라는 이름의 새 쪽지를 만들었습니다. 지루하고 심심한 학교에서 언제나 자극적이고 신나는 일을 꾸미는 건 아마 학생들이일 겁니다. 그런 M.S.G 같은 학생들의 소식을 이번 쪽지에서 집중적으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1부에 있던 '반가워요 후원인'은 3부로, 3부에 있던 '생활관 이야기'는 1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1부에는 'M.S.G', '생활관 이야기' 쪽지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반가워요 후원인'과 '화제의 인물'이 있는 3부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이 점 유의해서 소식지를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016년 신입 기자로 권윤서, 이성민 글 기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2016년 간디IN 봄 호 시작하겠습니다. ♡

M

멋있는

S

사람들

G

간디인



1부

우리, 같이 살고 있나요?



간디워 Z



글기자. 이한결, 이한슬, 이예슬
사진기자. 김담

우리, 같이 살고 있나요?

2015년 봄, 남자 기숙사에서 3학년, 5학년 간 집단 폭력사건이 벌어졌다. 예민해진 학교 분위기 속에서 남자 기숙사는 중·고 따로 분리되어 고등은 1층, 중등은 2층을 생활 공간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층간 분리 이후로 기숙사의 위계문화는 사라진 듯해 보였지만 중·고가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과 학생들의 불만도 생기고 있었다. 나는 G, 간디학교 남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다. 층간 분리 조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남자 기숙사의 층간 분리를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시작으로 학교를 뛰어다니며 모두의 생각을 듣고, 답았다. 층간 분리에 대한 모두의 생각,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

*본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찬성, 반대 입장으로 나눠 개인의 주장처럼 각색하여 함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을 통합한 글이며 개인의 의견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사 A: 나는 교사 A, 간디학교의 교사다. 층간 분리를 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음... 층간 분리를 결정했던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다. 게다가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 조치를 원하셨고, 당시 분위기와 당사자들과 살고 있었던 여러 학년들을 고려했을 때 분리 조치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층간 분리가 1년 동안 지속된 이유는 다른 이유였다. 중등의 자립, 중등이 알아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3년 과정 대안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우리 3학년보다 훨씬 성숙하다. 원인은 중등부가 고등부에 눌러 자신의 사고를 펼칠 기회도 적은데다가 고등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활 공간을 분리해 중등, 고등끼리의 독자적 문화가 발달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고, 항상 걱정됐던 지점은 관계 문제이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 친해지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관계적인 문제는 잠시 동안 통합 방안을 해 보는 등 여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폭력과 평등 문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면, 시스템으로라도 이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중·고 분리는 이에 있어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위계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1학년과 5학년이 같이 생활하면서 평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리하는 것이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극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교사 B: 나는 교사 B, 남자 기숙사의 층간 분리를 보면서 드는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층간 분리를 계속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분리되어 있다면 생활 공간 또한 분리해야 하겠지만, 6년제 학교인 이상 여섯 학년이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분리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통합을 해

봐야 한다. 통합을 통해 기대하는 점은 생활의 질서, 중·고등 간의 관계다. 반대로 걱정되는 부분은 중등부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면인데, 이 부분은 고등부들이 약속하여 줄여 나가기로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싶다. 부정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것보단 긍정적인 부분을 믿으며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란다.

교사 C: 나도 잘 모르겠다. 분리와 통합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적절하게 섞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시기와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해 통합과 분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분리는 폭력 및 위계 질서의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 생각한다. 폭력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중등끼리, 고등끼리의 위계도 생길 것이다. 이상적인 모습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받쳐 주어 선생님들 없이도 중등부가 잘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였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통합이 된다면 선배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선후배 간의 문화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걸까. 층간 분리는 위계 문화를 근절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중등부의 힘이 부족하단 것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 알 수 있었다. 안타까움과 고민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들어 볼 시간이다. 학부모님들에게 층간 분리는 어떤 의미였을까?

부모 A: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층간 분리를 해서 너무 좋아"라는 말을 해 준 적이 있었다. 애초에 중등

분리	통합
중·고 간의 독자적 문화를 마련해 중등의 성장을 돕는다.	모두와의 소통으로 가족같은 학교가 되자.
분리로 인해 위계의 소지를 최대한 차단한다.	고등부의 도움으로 저학년들의 생활개념 및 질서를 바로잡는다.
개인의 공간과 휴식을 보장해 준다.	서로 가르치고 도우며 살 수 있는 선후배 문화를 만들자.
억압적 분위기로 부터 자유로워 진다.	분리는 위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부와 고등부는 신체적·정신적 차이가 너무 크다. 그로 인해 생기는 위압감을 덜어 주기엔 층간 분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싶다. 개인의 휴식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숙사에서 층간 분리는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할 것 같다.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신입생들도 부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기숙사 생활을 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다.

부모 B: 제천간디학교의 큰 장점인 중·고 통합과정을 지켜 나갔으면 한다. 선배들이 도와줄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공간을 분리하니 소통마저 막히고 있는 것 같으며,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닌 듯하다. 물론 통합 시 생기는 문제점이 걱정된다. 술, 담배, 위계 문화 같은 좋지 않은 문화가 대물림되는 것 말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두려워 우리가 꿈꿨던 이상적인 중·고 통합과정에 등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차이를 인정하고 분리를 할 것인가, 모두와의 소통인가. 이 두 가지 핵심으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었다. 층간 분리의 대하여 무관심한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많은 부모님이 분리를 지지했다. 아이들이 위계 문화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듯하다. 이제는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생각을 보여 주려 한다. 남학생들을 만나 보기 전에 남자 기숙사와 마주보며 살고 있는 여학생들의 생각을 먼저 듣고 가 보자.

여학생 A: 어... 사실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았다. 층간

분리를 하고 있던 사실은 알고 있을 정도? 층간 분리 후 다들 잘 살고 있어 보인다. 그 이상은 모른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통합으로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전혀 없다.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서로의 생활을 모르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남자 기숙사에 살고 있는 남학생들의 이야기가 남았다. 1년 동안의 층간 분리를 경험하며 중·고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꺼낼 기회가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들어 볼 수 있다.

남학생 A: 나는 남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중학생 A이다. G가 나에게 층간 분리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했던 말은 “이대호가 좋아”였다. 그렇다. 지금이 너무 편하다. 고등학생 형들 눈치를 보던 생활이 불편했다. 지금은 매우 자유로운 기분? 고등부와 살아보라 하면 무서울 것 같다. 나 자신이 위계질서를 대물림할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중등끼리 살아가는 것이 더 재밌고 더 편하다. 지금 소홀해진 고등부와의 관계가 안타깝지만, 나는 지금이 좋다.

남학생 B: 나는 B. 남자 기숙사에 사는 중학생이다. 1년간의 층간 분리를 돌이켜 보면 매우 편했다. 눈치도 안 보고 비슷한 또래끼리 사니 재미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중등부의 생활은 어지럽다. 청소, 기상, 취침 등 생활 질서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졌지만 3학년들이 질서를 잡아 주기엔 너무 어렵고 위계로 보일까 걱정이야. 이는 고등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을 통해 질서를 잡자는 말이다. 물론 불필요한 위계는 근절해야 하며, 고등의 결



의가 필요하다. 고등부와 지내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합 방안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형들에게 배운 것도 많다. 학교 생활에 관한 것부터 몰랐던 지식까지 형들 어깨너머로 배워 성장한 면도 많고, 오히려 분리가 우리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중등부는 위계 문화에 대한 두려움, 편해진 지금 생활을 바꾸기 싫은 마음과 질서를 잡고 고등과의 소통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뉘었다. 고등부의 생각도 들어 보자.

남학생 C: 지금이 좋다. 서로 피해 주지 않고 사니 얼마나 좋은가. 통합을 한다면 중등부가 고생활 것이다. 나도 위계질서를 세우지 않겠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중등부를 위해서 분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애초에 고등부와 중등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살기는 힘들다. 지금이 서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방향 아닌가? 통합의 장점을 잘 모르겠다. 지금 생활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남학생 D: 층간 분리를 하면서 중등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지기 힘든 현실이 안타깝고 서로를 가족이라 하면서 중등과 고등을 어색한 사이로 만드는 게 불편하다. 통합을 하자. 불편한 지점도 많지만 즐거운 지점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한다. 중등부 시절을 떠올려 보면 형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배운 것도 많고 지금보다 훨씬 기숙사 분위기가 밝았던 것 같다. 지금은 다 같이 살고 있던 느낌을 받기 힘들다. 분리를 하니 고등부 형들이 어떤 형들인지 모르고, 중등부 동생이 어떤 동생들인지 모른다. 이는 학교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6년제 학교인데



간디워 Z

“중고 통합 6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인격적인 배려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대안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제천간디학교 교육성적〉 중-

통합의 문제점이 두렵다고 통합을 회피하는 것은 학교 다니며 배웠던 것이랑은 다른 듯하다. 대안을 찾아가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모두 잘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중·고등 간의 문화 성립과 위계문화 근절을 내세운 분리 찬성의 입장. 그리고 소통, 생활 질서 확립과 이상적인 통합과정 실현을 내세운 통합 찬성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할 수 없지만 중·고 통합과정, 여섯 학년이 같이 살아간다는 게 각자 다른 의미와 생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우리는 6년 과정 학교이며 기숙사에서 인격적인 배려와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학교이다. 현재는 위계 문화와 중등부의 성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분리를 택하게 되었지만, 분리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다른 채로 살아간다면 갈등은 깊고 깊어 언젠간 터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문제를 인정하고 이상적인 통합과정에서 한 발짝 발을 빼야 할까, 아니면 문제를 안고 이상적인 통합과정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살아가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꿔야 하지 않을까.

언젠간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글을 맺는다. ✎

*본 기사는 학생들의 옥 문화에 대해 취재한 설문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픽션입니다.

지금은 공포의 바이러스 시대, 2016년 2월에 옥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연구에 본격 돌입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짧지만 굵었던 연구를 통해 신 바이러스 연구 팀 ‘일상다반사’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고 만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면서, 연구 팀 또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처했다. 결국 연구소를 그나마 청정지역인 시골로 이전하게 되어 연구 팀 일상다반사도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투입되었다. 연구 팀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때까지의 연구 결과를 덕산면 곳곳에 공지했다.

공고문

덕산면 주민분들께 공고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옥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이곳 덕산면 또한 안전하지 못합니다. 주민분들은 다음 공지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현재 확산중인 바이러스는 'Heart Attack Virus' 로, HAV라 부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옥 바이러스' 라고 부릅니다. 옥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보균자로 확인됩니다.
2. HAV는 무증상 바이러스 였지만, 2016년 2월, 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보균자로 추정중인 인구는 72%이며, 바이러스 보균자는 좀비와 흡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3. 옥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는 무한합니다.
4. 이때까지의 보균자를 연구한 결과, 대부분 옥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를 통해 감염되며, 정확히는 대화할 때 생기는 침에 의해 감염됩니다. 이 침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옥설이 난무한 대화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감염확률은 높아집니다.
5. 전 세계적으로 옥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청소년의 경우 감염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여행 및 외출을 절대적으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6.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청정국가는 없습니다. 한국 또한 바이러스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며, 국내 보균자 또한 전 국민 중 50%에 육박합니다.
7.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8. 덜 익은 낙타고기는 섭취를 절대적으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팀 일상다반사가 덕산면을 계속해서 연구하던 중, 제천간디학교를 발견하게 되었다. 제천간디학교에는 전국에서 온 백여 명의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 팀은 제천간디학교를 1급 위험구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연구소 소장 김정환은 연구 팀을 소집해 당장 제천간디학교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구 팀은 즉시 제천간디학교에 잠입해 교내 건물을 샅샅이 뒤졌다.

“팀장님! 여기 단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색하던 중, 고참 연구원이 단서가 될 만한 수첩을 발견했다. 연구 팀은 즉시 김정환 소장에게 보고했다.

“소장님, 일반인 연구원의 바이러스 보균자 연구 일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팀원들은 연구소로 돌아와 일반인 연구원 S의 연구 일지를 들여다보았다.

2016년 3월 XX일

하루종일 보균자들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고등학생 보균자 중

4/5는 중등 때 감염됐지만, 중학생 보균자의 경우 중등 때 감염된 사람은

교과 15%밖에 되지 않았다. 중학생 보균자 중 초등학생 때 감염된 보균자가

무려 85%였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안된다. 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 밤은 무서운 밤이 될 것 같다.

* 69%가 친구를 통해 목을 배웠고, 선배(22%), 형제자매(11%)를 통해 배웠다고 응답함.

* 전교생 92명 중 목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84명, 사용한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 미응답자 6명

2016년 3월 XX일

얼마전, 제천간디학교에 들어온 후로 목 바이러스 보균자가 득실대는 학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목 바이러스라니... 슬픈 건, 그 누구도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너무 익득해서 자신이 보균자인지도 모른 채 생활했기 때문에 이 망할 바이러스 균이 영역을 넓히기 아날까. 하지만 난 살아야한다. 그리고 연구일지를 쓰면서 보균자들을 연구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전교생 92명 중 보균자 84명, 생존자 2명, 미호환 6명. 심각한 상황이다. 제발 탈출할 수 있길!!

2016년 3월 XX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눈빛이 이상해진다. 또 60% 이상의 보균자들이 별 생각없이 목을 하지만, 목을 들었을 때 또한 별 생각이 없던 보균자들은 26%밖에 없었다. 목을 들었을 때는 무려 74%의 보균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인 것 같다.

2016년 3월 XX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꽤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우선, 이 바이러스는 말을 통해 감염된다는 것. 혹은 대화를 하며 튀어나오는 침이거나. 또 전교생의 69%가 친구를 통해 감염되었다는 것. 나머지는 선배나 형제자매를 통해 감염되었을 듯 싶다. 아무래도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참 안타깝다.

HAV(목 바이러스) 연구결과

2016.3.XX

연구팀 임상아 박사

1. 대부분의 간디인들은 누군가를 평화하기 위해 목을 하는 것이 아닌, 습관적으로 목을 넘는다.
2. 보균자 중 89%는 자신의 목 바이러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며, 다수의 보균자들이 목 바이러스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보균자들이 자신의 바이러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백신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결과이다.



HAV



* 설문결과 응답자 중 70%가 습관적으로 목을 한다고 응답함.

* 89%의 간디인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 적이 있고, 90%의 간디인들이 언어습관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함.

“끝입니다, 소장님.”

“생존자가 있다니, 당장 구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균자들의 성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니 연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 또, 연구원 S를 찾아 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연구 팀은 소장 김정환의 지시대로 며칠간 밤샘 연구를 하며 또 다른 사실 세 가지를 발견했다.

연구 팀 일상다반사는 밤샘 연구를 마치고, 팀장 H의 지시로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많은 연구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 혹시 제천간디학교 교사들의 행방은 알아보았나?”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연구 팀 전원은 교사들을 수소문하도록!”

“예, 팀장님!”

연구 팀은 보다 확실한 연구를 위해 제천간디학교 보균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교사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교사 두 명의 행방을 확보했습니다.”

연구 팀은 교사 두 명을 찾아갔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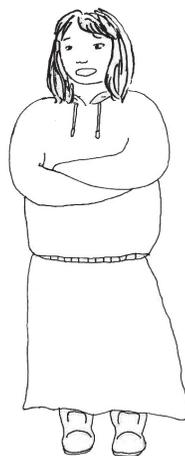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교사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일반학교 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쓴다고
생각해서 딱히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는데, 욕이
습관어인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해요. 누군가를
짜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그래도 욕의 어원을 알려준다거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좀 덜 쓰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욕 많이 썼냐고요? 썼죠, 엄청 많이 썼어요.
저는 여럿이서 생활을 하는데 한명이 욕을 쓰고,
그게 퍼지고 퍼지면서 바이러스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욕을 쓰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들 쓰니까
덜덜아서 쓰는 것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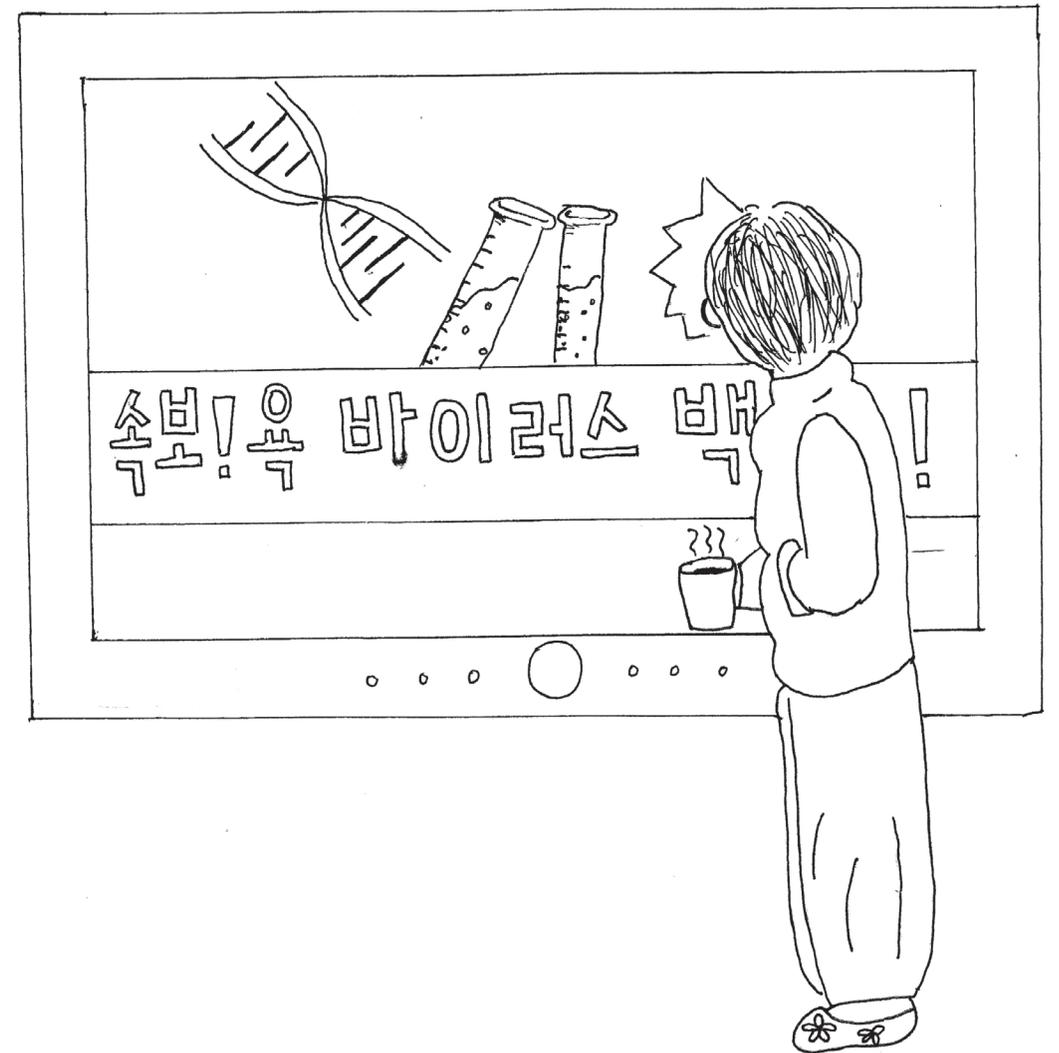


“좋아, 이 정도 연구 자료면 충분해. 팀원들, 모두 수고했다. 이 자료를 ‘중앙백신연구소’에 보내도록 해.”

“예, 소장님.”

연구 팀 일상다반사는 모든 연구 자료를 중앙백신연구소에 보내고, 며칠 후 덕산면을 떠나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한국백신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연구 팀 일상다반사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유행하는 욕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을...”²⁾



1) 여러 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개인 인터뷰로 표현했다.

-2부-

선고리와 간디학교

마을과 학교 간 관계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전학년 대상 -

그렇다
70.5%

많은 학생들이 마을과 학교 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우리의 개선 의지를 자극하고 있을까.

선고리와 간디학교,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

기획/취재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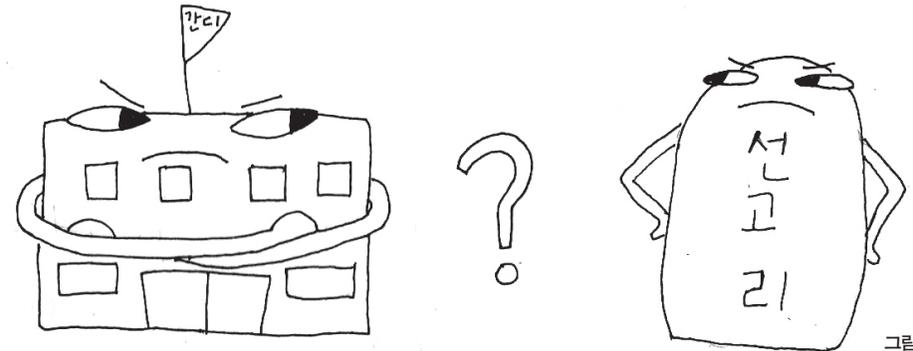
기자 하한, 이한슬

사진 기자 최문형

영상 기자(객원) 신동현

낯설음을 잃지 않을 때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 제천간디학교. 택배가 학교로 올 수 있는 주소이다. 간디학교가 선고리로 이사 온 지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2002년, 가을. 선고리와 간디학교는 처음 만났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선고리에 간디학교라는 북적임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우리는 마을의 매화가 언제 피는지, 선고리의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잘 알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이름을 다섯 명도 알지 못한다. 이토록 가깝고도 먼 선고리와 간디학교.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먼지 프로젝트

먼지 프로젝트는 취재 팀원부터 편집장까지 모두가 작명 센스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이번 프로젝트의 과제이다. 먼지가 쌓이는 건 당연하지만 알을 때 닦지 않으면 점차 더 멀리하고 싶어진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해는 알을 때 풀어야 하고, 깊어진 감정의 골은 좁처럼 마주하기 싫어진다. 이번 프로젝트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담당 기자의 이한슬, 하한과 사진 기자 최문형,

객원 영상 담당 신동현(12학년)까지 가세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녔다. 장장 두 달여 간의 취재 끝에 담아 낸 약 250GB의 인터뷰들을 모아 다큐멘터리와 기사로 풀어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먼지처럼 케케묵은 모습이었을까. 가장 먼저 마을을 바라보는 학교 구성원의 시선이다.



사진 1-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순으로 이경은 쌤(교사), 이철수 쌤(교사), 이다솜(16학번), 남궁연(13학번), 이재형(14학번), 손진근 쌤(교장), 이창기(13학번), 최형서(12학번), 김태은(13학번), 안효원(12학번)

미움보다 무서운 무관심

중·고 통합과정인 제천간디학교에 입학하면 졸업까지 총 6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결코 짧지 않은 6년 동안 학생들은 수업도 하고, 기숙사를 오가며, 마주하는 마을의 풍경 속에서 참 많은 주민 분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사실상 마을의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마을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서로 우리가 주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서로 같이 산다는 느낌은 더 없는 거고...”
-최형서(12학번)

“서로 관계가 차갑고, 안 좋다가보다는 그냥 무관심인 것 같아요. 서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크지 않을까...”
-안효원(12학번)

취재 과정에서 생각보다 금방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취재 팀은 현재 마을과 학교의

관계를 ‘나쁘다’로 전제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쁨보다 ‘무관심’이란 단어의 언급이 더 많았다.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에 나쁜 감정도 서로에게 작용하며(원하던, 원치 않던)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버린 마을과 학교는 제대로 된 관계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중략) 내 자녀가 없는 학교에 대해 불편함이 드는 건 당연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농촌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손진근(제천간디학교 교장)

“안 좋은 사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마을과 학교는 서로 데면데면하고 있죠. 이건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략) 문제 해결이라는 접근보다는 관계를 새로 시작한다는 목표로 (취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반경수(선림교회 목사)



사진 2- 반경수(선림교회 목사), 김재학, 김항래, 허윤희, 권사량, 홍화평, 이재금, 안영렬(간디학교 이전 당시 이장님), 엄병철(마을 지도자)

내가 토박이여

인터뷰를 통해 반경수 목사님은 취재 팀에게 다른 시선을 던져 주었다. 반 목사님은 간디학교에 수업 강사로 오시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¹⁾ 선고리에서 목회 생활을 한 지 7년째가 되었지만, 이제야 조금 마을 주민 분들이 마음을 열어 주신 것 같다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목사님이 던져 주신 화두는 관계 자체의 부재였다. 당초 마을과 학교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로 기획했던 취재는 ‘관계의 시작’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주민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고민 지점은 점점 견고해져 갔다.

“학생들이 없으면 동네가 조용하잖아.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왔다갔다 하는 게 그래도 마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웃음). 그런 모습들이 보기 참 좋아.”
-홍화평(62, 마을 주민)

“간디학교가 오고 나서는, 덕산에 빈 집들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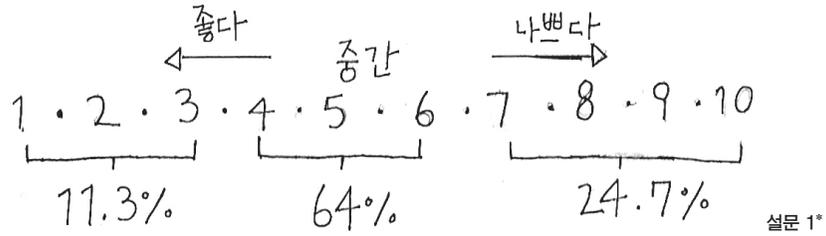
간디학교에서 다 차지한 거야.(웃음) 간디학교가 있어서 마을에 훈기가 돌고 있어. 시골엔 지금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
-김항래(70, 마을 주민)

“나는 좋아,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좋아. 간디학교가 없으면 이 시골에서 어디 애들 구경을 해?(웃음)”
-허윤희(70, 마을 주민)

밭에서 냉이를 캐고 있던 허윤희 할머니는 손이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셨다. 할머니는 간디학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신다. 오며 가며 간디학교 학생들을 자주 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라며, 취재 팀을 집으로 초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 주셨다.

“처음에는 와 가지고 말이 많았어. 마을회관 옥상에 가서 가시나들하고 머슴아들하고 한테 어울려서는 회관문은 어떻게 따고 들어갔는지, 저지래(잘못 하는 일)하고... (중략) 맥주를 먹고 마당에다 다 버려

학생들이 생각하는 마을과의 관계 친밀도
- 전학년 대상 -



설문 1*

마을과 학교 간 관계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전학년 대상 -

그렇다
70.5%

설문 2

놓고 그랬어. 그래서 아이고, 뭐 학교에 불량배들이 왔나, 웬일이냐 막 그랬었지.” -허윤희(70, 마을 주민)

“학생들이 술을 먹기도 하고, 마을회관에서 (술 마신 후에) 술병도 깨 놓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됐었고... (중략) 또 농작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농작물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밭에서 막 텅굴고... 그래 가지고 초창기에는 애를 먹었지.” -안영렬(간디학교가 이사 온 당시 이장님)

간디학교에는 매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다. 학생의 입장에서 선고리는 항상 새로운 공간이 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년 전 선배들이 했던 사건들까지 기억 속에 켜켜이 쌓여 가는 것이다. 예전 사건들을 겪지 못한 학생들은 이미 멀어져 버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쌓여 온 감정의 벽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트러블을 겪게 되는 것이다.

주민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과 학교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과 학생들을 보는 전반적인 ‘인

식’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했던 점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한 인터뷰에서 많은 주민 분들이 ‘쌤’들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은 부분이다.

“(간디학교가 이사 온) 초창기엔 선생님들을 잘 알았었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을 잘 모르겠더라고. (마을과 학교가) 융합이 잘 되려면 선생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불신이 없고 잘 돼야 해. 그래야지 주민들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나,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안영렬(선고리 전 전 이장님)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정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인사를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 근데 오히려 인사 안 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 어떨 때는 선생님들한테 내가 인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선생님이 맞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인사를 좀 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선생님들 스스로 먼저 분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걸 느껴...” -홍화평(62, 마을 주민)

웃는 얼굴에 침 뱉으라

꽤 긴 지면을 통해 마을 주민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마을 속에서 간디학교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엔 주민, 학생, 교사가 모두 역할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마을의 베품도, 학교의 호의도 관계 개선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재의 시작부터 문제의 핵심은 항상 가까이 있었다. 기사의 끝자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거창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제가 여기에서 목회 생활을 한 게 7년째인데, 제가 인사를 드려도 안 받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웃음) 그렇다고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꼬박꼬박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4, 5년 꾸준히 공을 들이니까 마음을 조금 열어 주신 거 같아요.” -반경수(선림교회 목사)

주민, 학생, 교사를 통틀어 서른 명이 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중 ‘마을과 학교의 관계

개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공통 질문에 모두가 입을 모아 웃으며 하는 ‘인사’에 대해 강조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대해 언급했다.

“제일 간단한 건 인사하고...” -오다민(14학년)

“인사 잘 쳐. 인사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돼.”

-허윤희(70, 마을 주민)

“제일 중요한 게, 인사여” -김향래(70, 마을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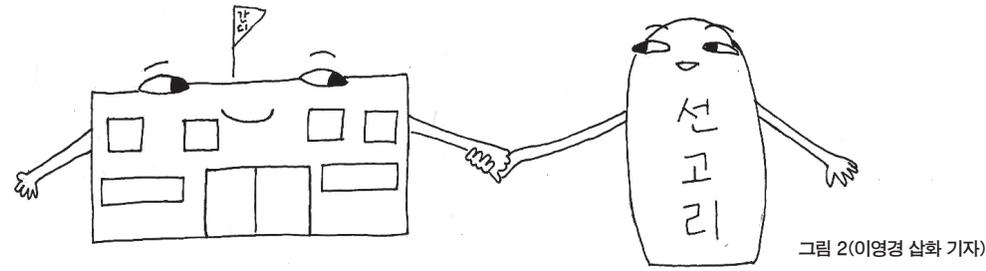
“인사하고...” -권사랑(76, 마을 주민)

“우리가 인사를 잘 해야 돼.” -안효원(12학년)

“인사를 해야지요.” -이철수(제천간디학교 교사)

“주민들을 만나면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간디학교 학생들이 인사성은 상당히 좋잖아, 그렇지? 인사하는데 누가 관계가 나쁘다 이러겠어?(웃음) -안영렬(선고리 전 전 이장님)

*2016년 3월,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마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1, 2 외 학생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이미지 등을 알 수 있었다.



낯설음을 잃지 않을 때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의식이 없다.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건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이번 2부 취재를 기획하며 던졌던 화두이다. 마을과 학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본 이야기들은 기사에 모두 담지 못했다.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 선고리와 간디학교, <낯설음을 잊지 않을 때>는 페이스북 '일상다반사'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상으로 담아 낸 이야기와 기사로 풀어 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르지 않다.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데는 '익숙함'이란 원리가 작동한다. 익숙함은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것에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관계는 익숙해질 때 소홀해진다.

낯설다는 느낌은 아직 선명하지 않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낯선 거리만큼 채워질 수 있게 비워져 있는 상태이다. 비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역설적이지만 한 공간에 살아가는 마을과 학교의 낯설음을 잃지 않을 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



반가워요 후원인

-간디의 소울메이트, 사과즙 이야기

화제의 인물

-감히 내려다볼 수 없는 베일 속 그녀!!!

글 기자 최유경, 박우제

사진 기자 박성현



<낯설음을 잃지 않을 때>

다큐 감상하는 법!

1.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한다.
2. 페이스북 검색창에 '일상다반사' 검색!
3. 게시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를 감상한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이번 봄 호예선 상큼한 사과와 친구가 되신 06학번 우도연 군의 어머니이시자 영주에서의 귀농으로 제2의 삶을 즐기고 계신 후원자 문호선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함께 가 볼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6학번 우도연 학생의 엄마이고, 영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후원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아이가 간디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간디인이라고 생각해요. 후원을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게 십시일반 모여져 학교에서 좋은 방법으로 쓰일 것 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귀농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계기로 귀농을 하셨어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점점 정서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귀농은 가난한 귀농이었어요. 자급자족 귀농을 하고 싶었어

요. 그래서 이삼천 평짜리 밭에서 쌀농사 지으며 살고 싶어서 남편이랑 전국에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소백산에서 울진에 갈 때 여기 영주에 왔었고, 우연히 사과나무를 보았어요.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구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귀농하고 뭐가 제일 달라졌나요?

내 일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업도 해 봤고 평범한 회사원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과점을 했구요. 그러다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니깐 공기도 좋고 삶이 편안해졌어요. 나무랑 풀이랑 교감을 하니깐 너무 좋고요. 나무를 돌보고 교감을 하다 보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되어서 무아지경이 되고 지칠 줄 몰라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경

험해 봤으면 합니다.

귀농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에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귀농을 후회한 적은 없고... 그냥 지금까지 너무 농사만 보고 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주변을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정말로 가까운 식구들에게 무심했던 듯해요. 이제부터라도 따뜻하고 다정한 표현을 일상에서 자주 해 보려고요.

사과 농장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사과나무 가지를 정리해 주고, 꽃도 따고, 열매숙기도 하고, 사과가 익을 무렵에는 해에 가려지지 않게 잎도 정리해 줘야 돼요. 또 사과가 무르익으면 따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시골에선 키우는 게 많아요.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가꿔야 해요. 요즘은 사과나무

묘목도 심고, 정원에 씨도 옮겨 심고, 천연 방제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방제¹⁾를 안 하지 않아요.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안 되는 천연 약제를 자주 뿌려 줘요. 목초액, 식물성 오일, 고삼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식초 같은 걸 뿌려 줘야 해요.

사과 농장 말고도 다른 일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제가 8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기농 사과 말고 다른 체험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영주시 기술센터의 제의를 받았는데, 제과제빵 기능사인 애아빠의 경험을 살려서 유기농 사과, 우리 밀 등을 활용한 과자 공방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나이가 있다 보니 똑같은 힘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줄이고 체험객들과 소통을 하



며 약간의 소득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어요.

무농약 농사가 힘들실 텐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무농약 농사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하면 똑같은 것 같고 다만 무농약이라서 약제를 써요. 그런데 화학 농약만큼 효과나 지속성이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벌레가 죽지 않으니깐 벌레랑 같이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사과들이 모양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농약으로 하면 뭐가 제일 좋은가요?

화학 농약을 아주 묽게 만들어서 자식에게 먹일 수 있느냐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안

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무농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한 먹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에서도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전국 한살림 물류 센터에 사과를 공급하고 일부는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 드려요. 또 벌레 먹은 사과가 엄청 많아요. 그건 사과즙으로 만들어서 좋은 먹거리로 팔죠.

사과한테 해 주고 싶은 말!

(웃음) 일단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일단 나를 즐겁고 풍요롭게 해 줘서 고마워요. 미안한 건 나무가 너무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애네들이 너무 힘들게 열매들을 내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



학교가 자율적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칫하면 무기력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인문학적 소양이나 기본 상식 같은 것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서 교양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확한 사과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유기농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공하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가장 건강하고 맛있어요.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도 모자라 맛난 밥도 해 주시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 주시고, 선물까지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내려다볼 수 없는 그녀

2016년 간디IN 봄 호, '화제의 인물'에는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지난 겨울 방학 동안 SNS에 자신의 멋진 사진을 자랑한 폭풍 좋아요남 김마루(2학년), 껌껌거리는 까마귀 웃음소리와 시종일관 또라이스러운 언행으로 다들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한 오다민(3학년) 후보를 제쳤단 것만으로도 이미 대박 날 느낌적인 느낌! 이번 봄 호에 실린 범상치 않은 이 분은 바로바로 3학년의 김예현 양입니다. 간디로 시작해 채식 홍보로 끝나는 그녀의 인터뷰와, 간디 냄새 폴폴 나는 고품격 럭셔리 화보. 만나보러 가시죠!

기자- 간디스럽게 자기소개 한 마디 부탁해.

예현- 제천간디학교 3학년 김예현이라고 해.

기자- 좀 더 길게 해 주면 안 돼?

예현- 이것만으로 충분히 간디스럽지 않아?! (웃음)

기자- 이번 봄 호 화제의 인물에 선정되었는데 소감이 어떤가.

예현- 내가 안 뽑힐 줄 알았어. 워낙에 쟁쟁한 후보 분들이 많아서 나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뽑혀 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기자- 평소 본인이 학생들에게 간디스럽다 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예현- 아, 솔직히 모르겠다. (웃음) 모르겠는데, 조금의 친화력이... 도움 되지 않았나 싶어. 조금의 친화력! 아닌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원래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지.

기자- 그게 간디스러움과 무슨 상관인가.

예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니깐 간디스럽다는 말을 듣는 거지. (웃음)

기자- 기자 본인 생각에는 예현 양이 채식을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채식을 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나.

예현- 계기는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있지. 엄마가 채식을 하시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동물이 잔인하게 사육되는 모습을 보고서부터 나라도 자제해야겠다 하는 다짐이 있기도 했고. 게다가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

기자- 채식의 장점이 있다면?

예현- 일단은!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되게 속이 깨끗해지고,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 (웃음)

기자- 채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채식 홍보 한 번.

예현- 어, 일단은 한 번쯤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자- 이제 3학년이 되어 논문 계획서¹⁾를 쓸 무렵인데, 혹시 논문도 채식에 관련되어 있나.

예현- 응, 그런 초록초록? 정말 간디스럽고 생태스러운 쪽으로 쓰려고 계획 중이야.

기자- 이번 화제의 인물 설문지에 '간디계의 장도연이다'라는 말이 쓰였을 만큼 키가 큰데, 왜 그렇게 큰가.

예현- 나는 키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평균? (본인 키 172cm)

기자- 전국의 키작녀들이 분노할 소리다.

예현- 나는 정말로 키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래도 내가 그 개구우먼 장도연 씨랑 키가 비슷해서, 이미지도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

기자- 독자들이 비결을 궁금해할 것 같다, 키 크는 방법이라면?

예현- 나는 사실 일찍 자 본 적도 없거든. 너무 재수 없게 나오려나? (웃음) 나도 모르겠는데... 아, 채식을 하세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큼니다! 그리고 우유보단 두유를 드세요. 우유보단 두유야, 유기농 두유!

기자- 아무래도 이번 봄 호가 나오면 예현 양이 더욱 핫해질 테고, 봄바람도 부는데 짝을 만나고픈 마음은 없나.

예현- 연애? 음, 언젠가는 해 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기자- 학교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예현- 그런 계기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좋아할 만한 계기가.

기자-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

예현- 음... 발일하는 남자? 뭔가 자연을 아끼고, 본인 노력으로 자급자족하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

기자- 김예현에게 마하트마 간디란?

예현- 아악, 진짜!!! 어... 다른 나라 사람이 봐도 대단한 일을 하셨고, 채식 선배! 채식도 하셨고. 그런 분이시지. (웃음)

기자- 즐거웠던 인터뷰가 벌써 끝이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예현- ...채식, 언제 한 번 꼭 해 보세요... 채식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시작부터 부끄러움 가득해 기자가 애를 먹었지만, 곧 돌변해 열정적인 채식 홍보를 하는 모습에 다들 빵빵 터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흔쾌히 인터뷰 진행해 준 예현이와 후보에 오른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번외 : Play List

화제의 인물 꼭지의 진정한 묘미, 핫한 예현 양이 좋아하는 노래라 그런지 역시나 핫합니다 :)

발일할 때 듣는 노래- 김광석, <먼지가 되어>
속에서 뭔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기분이 든다.

생태 화장실에서 듣는 노래- Rihanna, <Stay>
조용해서 집중이 잘 된다. (?)

좋아하는 아티스트- 김광석
목소리도 좋고, 가사가 마음을 울린다.

좋아하는 노래-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유 없다. 김광석 노래는 다 좋다. 🐼

1) 제천간디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의 일부인 논문을 위한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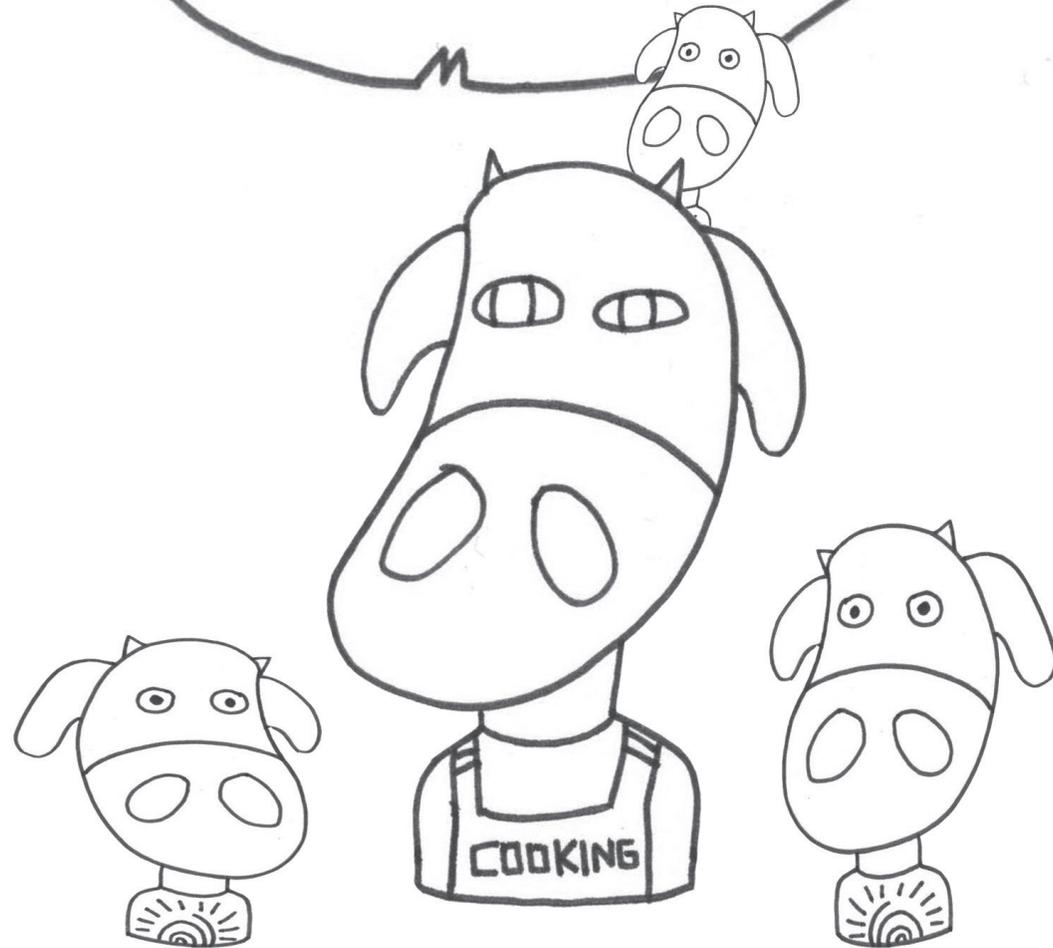
간디인의 짧은 소식

3월 18일 비폭력 서약식

안녕, 나는 간디학교에
살고 있는 간짧'소' 라고 해!
나는 우리 아들과 함께 간디 학생들과
어울리고, 여러 행사도 놀러다녀.
아! 마침 오늘 간디학교가 시끌시끌한데?
우리 같이 구경 가 볼래?



여기는 비폭력 서약식이
진행되는 강당이야.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서약문도 읽고,
자유발언도 하고 있네?
비폭력 서약식은 간디학교의 가장 큰
가치인 '비폭력'을 되새기고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야.





3월 19일 입학식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간디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간,
 입학식!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재학생들의
 공연에 신입생들까지.
 모두 들떠 있는
 분위기의 북적북적
 신나는 행사야.

어머, 우리 아들 어디 갔지?
 행사에 푹 빠져 정신없이
 보다가 우리 아들 챙기는 걸
 잊어버렸나 봐.
 애들아, 우리 아들 좀 찾아 줘!



-입학식 사진에 숨어 있는 새끼 소를 찾아 주세요-

3월 3일	일	6	13
4	토	5	12
5	금	4	11
6	목	3	10
7	수	2	9
8	화	1	8
9	일	0	7
10	토	30	28
11	금	29	27
12	목	28	26
13	수	27	25
14	화	26	24
15	일	25	23
16	토	24	22
17	금	23	21
18	목	22	20
19	수	21	19
20	화	20	18
21	일	19	17
22	토	18	16
23	금	17	15
24	목	16	14
25	수	15	13
26	화	14	12
27	일	13	11
28	토	12	10
29	금	11	9
30	목	10	8
31	수	9	7
1월 1일	토	31	30
2	금	30	29
3	목	29	28
4	수	28	27
5	화	27	26
6	일	26	25
7	토	25	24
8	금	24	23
9	목	23	22
10	수	22	21
11	화	21	20
12	일	20	19
13	토	19	18
14	금	18	17
15	목	17	16
16	수	16	15
17	화	15	14
18	일	14	13
19	토	13	12
20	금	12	11
21	목	11	10
22	수	10	9
23	화	9	8
24	일	8	7
25	토	7	6
26	금	6	5
27	목	5	4
28	수	4	3
29	화	3	2
30	일	2	1
1월 1일	토	31	30
2	금	30	29
3	목	29	28
4	수	28	27
5	화	27	26
6	일	26	25
7	토	25	24
8	금	24	23
9	목	23	22
10	수	22	21
11	화	21	20
12	일	20	19
13	토	19	18
14	금	18	17
15	목	17	16
16	수	16	15
17	화	15	14
18	일	14	13
19	토	13	12
20	금	12	11
21	목	11	10
22	수	10	9
23	화	9	8
24	일	8	7
25	토	7	6
26	금	6	5
27	목	5	4
28	수	4	3
29	화	3	2
30	일	2	1

3월 3일	일	6	13
4	토	5	12
5	금	4	11
6	목	3	10
7	수	2	9
8	화	1	8
9	일	0	7
10	토	30	28
11	금	29	27
12	목	28	26
13	수	27	25
14	화	26	24
15	일	25	23
16	토	24	22
17	금	23	21
18	목	22	20
19	수	21	19
20	화	20	18
21	일	19	17
22	토	18	16
23	금	17	15
24	목	16	14
25	수	15	13
26	화	14	12
27	일	13	11
28	토	12	10
29	금	11	9
30	목	10	8
1월 1일	토	31	30
2	금	30	29
3	목	29	28
4	수	28	27
5	화	27	26
6	일	26	25
7	토	25	24
8	금	24	23
9	목	23	22
10	수	22	21
11	화	21	20
12	일	20	19
13	토	19	18
14	금	18	17
15	목	17	16
16	수	16	15
17	화	15	14
18	일	14	13
19	토	13	12
20	금	12	11
21	목	11	10
22	수	10	9
23	화	9	8
24	일	8	7
25	토	7	6
26	금	6	5
27	목	5	4
28	수	4	3
29	화	3	2
30	일	2	1



권윤서 신입 기자(1학년)

안녕하세요!!! 신입 기자 권윤서입니다!! 우와아아 패기 넘치는 신입 기자!!! 아직까지는 정말 제가 일상다반사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ㅎㅎ 빨리 멋진 글을 쓰고 싶습니다! 아직 별로 할일이 없어 앉아만 있었지만 ㅎㅎ 다음 호부터는 좋은 글이 나오도록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일상다반사 파이팅!!



이성민 신입 기자(1학년)

안녕하세요~ 신입 기자 이성민입니다!!! 일상다반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고 제가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지금 이렇게 기자 후기를 쓰고 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네요. 꿈만 같아요 ㅎㅎ 저는 이번에 정말 한 것 없이 회의 시간에 앉아 박수만 쳤어요. 다음에 나올 여름호에서는 저의 첫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박우제 기자(2학년)

저번 호 후기에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할게요~!”라고 했는데, 저번처럼 마감 일주일 전에 모든 것을 다 해치워 버렸네요. 아무튼 다음 호는 정말~ 잘해서 마감 직전에 다 해치워 버리지 않겠습니다.



김담 사진 기자(2학년)

1년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봄 호가 왔네요 하. 하. 하. 정말 혼란스럽네요, 찍은 게 많이 없어서. 다시 신입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여름 호에는 좀더 제 사진이 많이 실리길 바라며 ㅠ



김재하 삽화 기자(2학년)

이번 호 처음으로 스케줄러를 그려 봤어요. 매일매일 일정 메모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는 과정에서도 몇 번의 실패를 하고서야 완성본이 나왔어요. ㅋㅋㅋ 그래도 이렇게 다 마치니까 엄청 뿌듯합니다!! 웬지 또 스케줄러를 그리다면 완전 빨리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ㅋㅋㅋ 어쨌든 기자 여러분, 이번 호도 수고하셨고, 도와준 영경 누나 고마워. ㅋㅋㅋ



이한결 기자(3학년)

안녕하세요, 올해 첫 기사가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사이지만 동시에 많은 재미와 보람도 느낀 기사였습니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보람 찬 기자 생활하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기자(3학년)

감사합니다.



최문형 사진 기자(3학년)

언제나 기자 후기를 쓸 때면 아무것도 안한 거 같네요. 다음 호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번 호는 후원인 취재도 가고 처음으로 포토숍도 해 보고 좋았어요. 비록 마감은 늦었지만요... 죄송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마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영경 삽화 기자(3학년)

삽화 기자가 마지막으로 삽화 원고 받는 날이 일주일씩이나 미뤄져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일상다반사 모두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 제 삽화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삽화 기자 이영경은 물러갑니다. 안녕~



박성현 사진 기자(4학년)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형, 김담!! 나는 필리핀을 갈 테니, 너네는 열심히 여름 호를 완성해라.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안녕!



이예슬 기자(5학년)

이번에는 정말로 한 일이 없어서 기자 후기 쓰는 것도 부끄럽네요! 같은 꼭지 맡았던 한결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모든 기자분들, 특히 한결이랑 우리 편집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하한 기자(6학년)

다시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김민석 편집장(5학년)

봄 호 제작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기자들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일상다반사 내부 사정으로 제가 여름 호 편집장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름 호는 더 열심히 하고 기자들에게 신경도 많이 써 줘야겠습니다. 좋은 소식지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



2016년 1월11일 부터 3월24일까지 저희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와 계좌 입금, 물품 후원 등 후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체험학습비와 사회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 후원 418명 1,186건 16,741,000원/ 계좌입금후원 4명 90,000원

(주)두인기전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상 강응택 강재은 강지혜 강치호 고규원 고수원 고지철 고희라 공정호 공지환 공치성 곽영현 곽용호 구경란 구자민 권승영 권승호 권영숙 권호정 길주연 김갑유 김경미 김경민 김경민 김경순 김경영 김경자 김계숙 김광태 김구한 김남수 김대석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동현 김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희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선 김미옥 김미정 김백영 김병섭 김삼부 김상덕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태 김승새봄 김수진 김수진 김승진 김양진 김영경 김영규 김영란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환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유태 김윤성 김윤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 김재권 김정라 김정미 김정일 김종성 김종우 김종원 김종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진태 김찬해 김창년 김태홍 김학규 김현기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림 김혜숙 김혜정 김혜정 김호연 김희교 김희균 나윤정 남용기 남지은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마미경 마석훈 마정애 문성룡 문신호 문효선 문효선 민병선 박경애 박경호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봉규 박서영 박성수 박성열 박영문, 김숙정 박영선 박영희 박용규 박인옥 박장식 박진수 박채영 박혜연 박호성 박환홍 박홍식 배영수 배필늘 백동민 백동훈 백명기 백미숙 변기영 빈중일 서홍원 선미식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정현 손주영 손진근 손진윤 송지은 신동운 신윤숙 신주영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주연 안주현 안준영 안진희 안춘자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자영 양화숙 양후남 여통수산(주) 오경석 오명택 오무건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의석 오익문 오정훈 오혜영 오호균 우기백 우성섭 우성호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수진 유운모 유원유통(농산물)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중선 유지상 유춘자 유태규 유태목 유태옥 윤민호 윤보영 윤수민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한식 윤호선 은종복 이강욱 이경희 이광일 이근행 이기하 이기호 이동우 이명조 이명희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숙 이민수 이민주 이민지 이보완 이봄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윤 이상현 이선애 이선애 이선재 이성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미 이수진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이승욱 이승환 이영주 이오순 이요훈 이용수 이윤철 이은희 이재성 이재웅 이정석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운 이준용 이지은 이진석 이진우 이철희 이한진 이향미 이현주 이혜림 이호창 이흥구 임남규 임반석 임병포 임봉규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성운 장영순 장진숙 장형철 장희숙 전경일 전경희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봉균 전수미 전영복 정경훈 정다운 정문자 정미영 정상인 정석현 정성욱 정연경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종명 정지은 정철 정철 정태균 정한경 정희정 조경선 조경선 조경애 조경희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수경 조숙자 조영도 조은아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철연 진상정 진상기 진은주 진정란 차상진 차영순 채상병 채신자 천희진 최도연 최문택 최상운 최선주 최선희 최숙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용 최인화 최일훈 최재민 최재화 최종현 최진웅 최홍석 하승렬 하영아 하윤주 하종수 하태광 한광덕 한용택 한현 허미경 허성희 허영순 허인영 형제수산 홍금자 홍기봉 홍수연 홍수정 홍원희 홍현일 황국덕 황둘남 황선태 황소연 황인명 황인숙

- * 후원철물 강현구님 금일봉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 13창수네 사과와 사과즙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 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기존 회원분들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 서류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653-5791/ 팩스 043)653-5798 / 김경수 010-4135-2747

